

음운이란?

- ▷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소리'가 중요)
음소 (분절 음운)와 운소 (미분절 음운)로 나뉜다.

최소대립쌍이란?

- ▷ 음운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파생 개념으로,
같은 자리의 단 하나의 음운만이 (최소)
달라서 (대립) 뜻이 구별되는 두 말 (쌍).
이를 분석하여 음운의 개념을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최소대립쌍 분석

1. 소리 vs 보리

- ▷ 첫 음절의 초성이 달라서 뜻이 구별된다.
따라서 최소대립쌍이다.

2. 우리 vs 수리

- ▷ 첫 음절의 초성이 달라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첫음절 '우[우]'는 'T[우]'와 소리의 차이가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초성의 'ㅇ'은 음운이 아니다. 따라서 음운의 개수가 다르므로 최소대립쌍이 아니다.

3. 닥 [닥] vs 답 [답]

- ▷ 겉모양에는 최소대립쌍이 아닌 것 같지만 음운을 기준으로 볼 때는 초성이 달라 소리로 뜻이 구별되므로 최소대립쌍이다.

4. 옷 [으] vs 옷 [으]

▷ 절묘기에는 최소대립쌍인 것 같지만
음운을 기준으로는 종성이 같아서 소리로는
뜻이 구별되지 않으므로 최소대립쌍이
아니다.

5. 눈 [눈] vs 눈 [눈^{스노우}]

▷ 장단음의 차이 역시 소리도 뜻을 구별해
주므로 최소대립쌍이다.

분석 결과

▷ 음운은 소리이므로 [소리]를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초성의 'ㅇ'은

음운이 아님을 인지해야 하며, 음운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장단음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음절이란?

▷ 독립적으로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음운으로 구성됨.

음절의 유형

1. 모음 (중성 단독)

ex) 야 → 초성의 'ㅇ'은 음운이 아님.

2. 자음 + 모음 (초성 + 중성)

ex) 너, 도

3. 모음 + 자음 (중성 + 종성)

ex) 음, 운

4. 자음 + 모음 + 자음 (초성, 중성, 종성)

ex) 잘, 콧

음절의 특징

▷ 종성의 모음은 초성의 우측에 올수도,
하단에 올수도 있음.

ex) 야, 호

▷ 모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음.
⇒ 모음은 음절 구성을 위한 필수 요소.

▷ 문장 내에서 음절은 겹보기와 달리
그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

▷ 초성과 종성에는 자음이 한 개만 올 수 있다는
제약이 있음.

문법 문제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ㄱ) '밭'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 초성을 바꾼 경우 (밭, 살)
- 중성을 바꾼 경우 (밭, 불)
- 종성을 바꾼 경우 (밭, 방)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보기>의 음운 카드를 활용하여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음운 :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ㄱ

ㅁ

ㄴ

ㄷ

- ① 'ㅁ', 'ㄴ', 'ㄱ'을 차례로 사용하면 '떡'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군.
- ② '떡'의 가운데소리인 'ㄴ' 대신 'ㄷ'를 사용하면 새로운 단어가 되는군.
- ③ '목 : 곶'에서 보면 첫소리가 끝소리에, 끝소리가 첫소리에 쓰일 수 있군.
- ④ '떡 : 목'처럼 가운데소리는 첫소리의 오른쪽에 써야 하는군.
- ⑤ '목 / 떡 / 곶 / 곶'처럼 음운의 결합에 따라 의미가 다른 여러 단어를 만들 수 있군.

문법 문제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 료 >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아, 야, 와, 의)
ㄴ. '초성 +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끼, 노, 며, 소)
ㄷ. '중성 +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알, 억, 영, 완)
ㄹ. '초성 + 중성 +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각, 녹, 딸, 형)

- ①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
- ②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이다.
- ③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다.
- ④ 초성 또는 중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 ⑤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한다.

음운의 분류

분절 음운

▷ 분절이란 음절의 경계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음 19개

모음 21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21개

반모음 j, w

(반모음을 음운으로 보는 관점이 민중)

올해 수특도 반모음을 음운으로 본다.

비분절 음운

▷ 음절의 경계를 가시적으로 나눌 수 없음.

장단 (공식적으로는 유일한 비분절 음운)

강약

고저

⋮

분절의 예시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먼저)

1. 분절 [분절]

▷ ㅁ / ㅌ / ㄴ / ㄹ / ㄱ / ㄲ / ㄴ

2. 오리 [오리]

▷ ㄴ / ㄹ / ㄴ

3. 값 [값]

▷ ㄱ / ㅌ / ㅁ

4. 지혜 [지혜/지혜]

▷ ㄹ / ㄴ / ㅎ / ㅈ / ㅊ or ㄹ / ㄴ / ㅎ / ㅈ

분석 결론

▷ 소리를 기준으로, 이중 모음은 만모음과 단모음으로

자음 체계표

조음 위치		입술소리 (순음)	잇몸소리 (치조음)	센입천장소리 (경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연구개음)	목청소리 (후음)
조음 방법						
파열음	평음	ㅂ	ㄷ		ㄱ	
	경음	ㅃ	ㄸ		ㄲ	
	격음	ㅍ	ㅌ		ㅋ	
파찰음	평음			ㅈ		
	경음			ㅉ		
	격음			ㅊ		
마찰음	평음		ㅅ			ㅎ
	경음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위는 방법이 없다면 → 바다 가
 다만 외고 믿음해보면서 짜 해
 표 이해는 필수. 맛난 오
 리

(공명음)

▷ 쌍자음은 하나의 음! 비음과 유음은 울림소리.
 나머지 자음들은 모두 안울림소리.
 (장애음)

단모음 체계표 (10개)

혀의 앞뒤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혀의 높이 (하악의 벌어짐)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입 조금 벌림)	ㅣ	'ㅣ'를 발음하다가 입술을 동그랗게 말면 나오는 소리 ㅊ	ㅡ	ㅜ
중모음 (입 중간 벌림)	ㅐ	'ㅐ'를 발음하다가 입술을 동그랗게 말면 나오는 소리 ㅑ	ㅓ	ㅗ
저모음 (입 적게 벌림)	'ㅐ'를 발음하다가 입술 더 크게 벌리면 나오는 소리 ㅒ		ㅕ	

▷ 외우는 방법이 없다면 → 키키를 주게 되었소
다만 외우고 발음해보면서 내가
표 이해는 필수.

▷ 'ㅑ, ㅓ'는 단모음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
하는 것이 더 모편화되어 이를 허용함.
(ㅑ는 'ㅐ'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 모음은 모두 울림소리.

이중 모음 체계표 (11개)

계열	
j 계열	ㅈ, ㅊ, ㅊ, ㅊ, ㅊ, ㅊ
w 계열	ㅊ, ㅊ, ㅊ, ㅊ
ㄱ 계열	ㄱ 다만 올해 수특강은 'j' 계열로 봐요!

▷ 현대 국어의 이중 모음 모두 ('ㄱ'는 불분명)

'반모음 + 단모음' 구조이며, 이를 ^{반→단으로 상승!} 상향 이중 모음이라 합니다. (말음해보면 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ㅈ'는 'ㅣ'를 불완전하게 발음하다가 'ㅈ'를 연이어 발음하면 됩니다.)

▷ 이중 모음은 외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모음 체계표에

j와 w를 앞에 붙여보면 나오니까요. 'ㄱ'만 외쳐요.

(j+ㅈ, j+ㅊ, j+ㅊ, j+ㅊ, j+ㅊ, j+ㅊ)

w+ㅈ, w+ㅊ, w+ㅊ, w+ㅊ)

이중 모음 관련 표준발음법 조항들 (예외 규칙)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쨌, 처'는 [저], [쨌], [처]로 발음한다. (원칙)

▷ 사라져 [사라져], 지쳐 [지쳐], 살쨌 [살쨌]
간혀 [가쳐]

2. '예, 려' 이외의 '케'는 [기]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 '예, 려'는 [예], [려]로만 발음해야 한다.

▷ 예절 [예절], 목례 [몽례], 사례 [사:례]

지혜 [지혜/지혜], 가게 [가게/가게]

폐점 [폐점/폐점]

3. 초성계 자음이 오는 음절의 'ㄱ'은 [1]로 발음한다. (원칙)

▷ 희망 [히망], 피어쓰기 [디어쓰기], 무너 [무네]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1]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 첫음절의 '의'는 반드시 [니]로 발음한다.

▷ 의지 [의지], 회의 [회의/회이]

5.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 나의 것 [나의 것/나에 것]

정이의 사도 [정이의 사도/정이의 사도/정이에 사도/
정이에 사도]

'민주주의의 의미'에 키 규정들을 모두 적용하면

[민주주이에 의이]가 된다.

결론

▷ 예시들을 많이 찾아 적용해보시고, 원칙과 허용 발음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문절 음운인 장단음 분석

- ▷ 중세 국어의 성조 (상성: 음높이를 달리하려면 발음이 길어질 수밖에 없음.)로부터 유래함.

장음 관련 표준 발음법 조항

1.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장음이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눈모라 [눈:모라] vs 함박눈 [함박눈]

밤나무 [밤:나무] vs 군밤 [군:밤]

↳ 보상적 장음화

2. 다만, 합성어의 경우 어느 정도 끊어서 발음할 수 있는 접어의 성격을 지니면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장음이 나타난다.

▷ 선남선녀 [선:남선:녀], 반신반의 [반:신반:의]

3.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면 장음이 나타난다. (보상적 장음화)

▷ 되어 → 돼 [돼:] , 하여 → 해 [해:]

음운의 개념 파트 정리

1. 단어들 소리로 표현하여 음운 분석하기
2. 분절 음운 (자. 모음) 체계표 이해하기
3. 발음 규정들 여러 예시에 적용해보기

음운 분석 틀

- ▷ 1. 소리를 먼저 [표시] (음운 변동으로 표기와 소리 다른 경우 조심하기)
2. 초성의 'ㅇ' 제외하고,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분리
3. 초성 → 중성 → 종성 순으로 분절하기

다음 4가지의 단어를 분절하여 분석해보세요.

1. 경황

2. 삶은 계란

3. 앞따랐다

4.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정답

1. 경황 [경황]

▷ ㄱ/ㅇ/ㄱ/ㅇ/ㅎ/ㅍ/ㅏ/ㅇ

2. 삶은 계란 [삶은 계란 / 삶은 계란]

▷ ㅅ/ㅏ/ㄹ/ㅁ/ㅡ/ㄴ/ㄱ ^{러용} { ㅇ/ㄱ/ㄹ/ㅏ/ㄴ

3. 알따라다 [알따라타] { ㄱ/ㄹ/ㅏ/ㄴ

▷ ㄱ/ㅏ/ㄹ/ㅏ/ㅏ/ㄹ/ㅏ/ㅏ/ㅏ/ㅏ

4. 무구정광대다라니경

▷ ㅁ/ㅏ/ㄱ/ㅏ/ㄱ/ㅏ/ㅇ/ㄱ/ㅍ/ㅏ/ㅇ/ㄷ/ㅏ/

ㄷ/ㅏ/ㄹ/ㅏ/ㄴ/ㅇ/ㄱ/ㅇ/ㅇ